



제목	성서와 정치권력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발행일	2000. 3. 5.
저자	로버트 쿠틀, 메리 쿠틀 장춘식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95
ISBN 또는 ISSN	978-8948702736

내용 요약

이 책은 성서의 형성과 정치의 역학 관계에 대한 개론적인 연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성서연구에 대한 기존 역사비평방법부터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의 비평방법까지 수용하고 있다. 저자는 성서의 각 책들이 당대의 세력자들이나 정치집단들이 벌였던 권력게임 과정에서 결국 그 역사를 지배했던 자들의 산물이라고 본다. 저자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의 제의집단이 문서를 기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와 사원 제도를 합법화해주는 성서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서는 기원전 1250년경부터 서기 550년까지 180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 기원전 125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으로서 팔레스틴에 등장했던 시기이고, 서기 550년은 성서를 산출했던 유대인과 기독교인 조직들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렸던 때이다. 성서는 그 두 시기 사이에 만들어져서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0장 “바벨로니아의 지배자들과 망명 정부”와 11장 “페르시아의 지배자들과 새 성전”에서 저자는 키루스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페르시아의 팔레스틴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국의 왕실제의를 지지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페르시아가 지원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 포로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으며 페르시아가 그것을 제국 통치에 이용했음을 보여준다.